

광주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광주피해장애인쉼터, 맞손

지역사회 연계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예방 위한 '업무협약식' 개최 신속한 대응 및 지원으로 심리적·신체적 안정 및 보호조치 가능

광주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지난 6일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광주피해장애인쉼터와 '지역사회 연계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식으로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장애학생에 대해 신속한 대응 및 지원으로 심리적, 신체적 안정 및 보호조치가 가능하게 됐다.

특히 협약 주요 내용은 ▲피해 장애학생 보호 및 지원 ▲피해 장애학생 발생 시 신속한 연락 체계 구축 및 대응 협력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장애학생 지원 ▲장애학생 인권 보호 역량강화 연수 지원 ▲기타 상호 협력 및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교환 및 협력·자문 등이다.

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신미숙 과장은 "쉼터가 피해 장애학생들의 보호조치와 지원을 함으로써 빠른 치유와 심리적 회복을 도

와 안정적인 학교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예방 및 지원을 강화해 장애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권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피해장애인쉼터 '보담'은 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해 지난 2021년 8월에 개소해 운영 중이다. 학대피해장애인과 위기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임시보호, 심



리안정, 피해회복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김재한기자

여수양지초, 11년째 지속된 학생자치회 주관 나눔 행사

여수양지초등학교는 전교학생회 주관으로 '사랑 나눔 실천'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11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사랑 나눔 실천'은 학생 모금 운동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나눔을 실천하는 활동이다. 본교 병설유치원과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생자치회 임원들이 주체가 되어 직접 모금함과 홍보팸을 만들고 홍보한 결과, 총 705,260원을 모금하였다.

학생들의 마음을 모은 모금액은 반별학급회의와 전교회의를 거쳐 매년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미평종합사회복지관과 굿네이버스로 결정하였다. 이번 나눔은 소외이웃을 돌아보고, 아낌없는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물하는 손길 위에 또 다른 사랑을 더해, 따스한 나눔의 가치를 함께 누리자는 의미를 담아 시작

'사랑 나눔 실천' 학생 모금 운동으로 진행



되었다. 12월 28일(수)에는 미평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를 찾아가서 어르신들께 새해 인사를 드리고 손편지와 함께 직접 포장한 선물을 전달하였고, 1월 4일(수)

에는 굿네이버스 여수지부에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을 학생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준비하여 전달해드렸다.

여수=김현근기자

완도금일고, 치즈 만들기 체험활동 운영

완도금일고등학교는 최근 진행된 치즈 만들기 체험활동을 통해 전교생이 특별한 경험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조별로 치즈 성분과 제조 과정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직접 치즈를 만들었다. 우유에 식초, 렌넷 등을 넣고 고르게 젓는 과정을 거쳐 작은 크기로 쪄내는 등 단계별로 치즈가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체험하였다.

체험을 마친 1학년 학생은 "치즈를 주무르고 다듬어서 내가 만들고 싶은 모양으로 만들 수 있었다는 점이 재미있었다. 직접 체험하여 만든 치즈를 활용하여 어떤 음식에 넣어 먹을



지 생각해보는 때 뿌듯하고 기대가 되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청암대 산학협력단, 위탁 광양시가족센터 '광양시가족문화센터' 개관



청암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광양시가족센터는 다양한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가족 친화형 공간 '광양시가족문화센터'를 개관하였다.

순천=김승호기자

광양시가족문화센터는 광양시 동광2길 9-7에 연 면적 2,670㎡에서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졌다.

따라서 광양시가족센터, 광양시 시니어클럽, 광양시어주민플러스센터 등 복지기관과 가족공연장, 가족애(愛)뜰, 어울림 부엌, 동아리실 등 시민문화교류공간 등 다채로운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보성복내중학교는 최근 보성다비치콘도에서 학생자치회 역량강화 캠프를 열어 2023년 학생자치회의 도약을 꿈꾸며 신규 학생자치회의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먼저 '학생 자치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빛가람중학교의 학생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사례

를 포함한 강의를 듣고 2022년 보성복내중 학생자치회 활동과 비교하며 분석하기도 했다.

지난 2일 학생자치회 부장 면접을 통해 뽑힌 신규 부장들과 함께한 이번 학생자치회 역량강화 캠프는 다른 어떤 활동 보다 큰 의미가 있는 활동이었다. 2022년 활동한 학생자치회의 각 부서 활동들을 선배들이 발표하고, 신임 학생자치회의 멘토가 되어 2023년 학생자치회 계획을 수립하는데 길잡이가 되었다. 신임 부장들의 면접 과정에서 발표한 활동을 포함하여 서로 토론하고 조율하며 계획 수립에 집중함을 더했다. 학생자치회의 결의를 다지며 마친 이번 캠프는 기숙형공립중학교인 보성복내중을 더욱 활기차고 행복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보성=김명순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